

은혜와 진리소식

2026년 10월 18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69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저처럼 미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도

사랑과 권능의 손길을 내미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박 미 희 -

참으로 어렵게 저희 부부에게서 귀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자 친정어머니의 마음이 조금해지셨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목침 모양 이어도 좋으니 어서 아이 하나만 낳으라”고 보채셨습니다. 별의별 약을 다 먹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으나 저의 몸무게만 늘어날 뿐 아이 소식은 없었습니다. 병원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여러 병원을 다녔보았으나 역시 소용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인공수정을 해보기로 결심하고 전문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단번에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술을 한 다음 달에, 보고 싶지 않았던 생리혈이 나와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어디 주시나 안 주시나 볼게요.” 그런 속마음으로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인공수정은 12번 정도 시도해야 한 번 성공할 정도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개월 후로 시험관 시술 날짜를 정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웬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를 갖게 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 앉은 채 그 자리에서 울면서 힘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떼를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데도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의 딸, 안 할래요. 하나님! 죄송해요.” 울고 불며 기도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 달력을 보니 마침 수요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에 배가 어찌면 제가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예배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날의 수요일예배는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회장 조용목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신유와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실

때에 처음 느껴보는 이상야릇한 느낌과 동시에 온몸이 찌릿하며 순간 몸속에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어서 순간 어리둥절했다가 곧 “할렐루야!” “아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쉽게 아이를 주실 거면서, 그동안 왜 저를 힘들게 하셨나요.” 한없이 기쁘면서도 저는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임신 4개월이 되었을 때 입덧이 매우 심하여 죽을 것 같다며 하나님께 또 투정을 부릴 때에, 저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아이를 가져 행복해할 겨를도 없이 저는 어머니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 누운 지 두 달이 되었을 때는 극심한 입덧에 더하여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심신이 지치고 힘이 들어 마당 한가운데서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의 상황을 제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제 아이를 데려가시고, 대신 어머니를 다시 건게 해주세요.”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투병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어머니를 남 보듯 하였고, 동생들은 회사일과 학교 공부로 바쁘거나 아직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남동생이 저를 따라서 어머니가 계신 병원에 다녔지만 사실 저 혼자 간병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데려가시고 엄마를 다시 건게 해달라는 호소를 하나님께 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 제 심정이 그랬습니다. 그랬던 저였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권능 베푸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아이와 어머니를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몸져누운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어머니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름 더위에 제가 흘린 땀과 어머니의 용변 냄새가 방안에 가득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는 저를 부르시고는 “일어서서 걸어 보게, 나를 좀 붙들어다오.”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걸음마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붙들어 주시고 더 도와주셔서 마침내 어머니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겨우 숨만 붙여있던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걸음을 건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처럼 친정어머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치료의 기적이 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고 두 발로 걷게 되셨지만, 저는 출산 예정일이 11일이나 지났는데도 아이가 세상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갑작스럽게 남편이 고향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서 보살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넘겨 12일째가 된 다음 날 아침에,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몸이 침대에 달라붙은 것처럼 움썽달썽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만 일어나서 밥을 먹으라고 하셨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급하게 부른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고향에 내려간 남편 대신 아직 몸이 성치 않은 친정어머니가 대신 보호자로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셨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 했던가요. 수술 도중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에서 나와서 어머니에게 산모와 아이 둘 중 한 명만 살릴 수 있는 위급한 상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저는 지금도 상상조차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부득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친정어머니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어머니는 환자 보호자와 가족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들이 하는 이런저런 부정적인 말을 듣는 중에도 ‘내 딸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내 딸도 틀림없이 살려주실 것이다’는 믿음이 생겨서 그랬다고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손녀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건강한 울음소리를 내며 태어났고, 어머니의 딸인 저는 7시간 넘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동생들과 그 때까지 외손자는 필요없다고 하셨던 친정아버지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 오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눈 뜨게 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버지가 저를 내려다보며 하염없이 울고 계셨습니다.

대부분의 산모는 수술하고 일주일이면 퇴원을 하는데, 저는 마취 후에 독감을 앓게 되었고 계속 열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어서 아이를 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입원 5일째가 되던 날, 아이 면회 시간이 다가오자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한 것, 아무리 아프고 힘들다 해도 아이가 안 보고 싶니?” 그때서야 저는 휠체어를 타고 제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많은 아기 가운데 가장 한가운데에 제 아이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는 아기들 중에 제일 못생긴 아기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보았을 때는 제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였습니다.

저처럼 작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역공과

제4권 (4단원 :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들)

(제20과) 전도자 빌립

- 본문 : 사도행전 8:1-13, 26-40

• 요절 :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행 8:12)

• 찬송 : 268장(새찬송가 505장), 274장(새찬송가 497장)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기 전까지 만해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교회에 대한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위기를 만난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패배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붙어 닦친 핍박은 교회를 잔멸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때 빌립 역시 핍박을 피해서 각처로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아프리카 대륙에 전파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오늘은 빌립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1. 빌립은 전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간 것은 교회에 대한 핍박 때문이기는 했지만, 그 당시의 형편으로 볼 때에 빌립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그 모든 민족적인 편견을 능히 극복하였습니다. 그의 생각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데 있을 뿐 편협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

다. 빌립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이로써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한 것을 보아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자 빌립의 열심은 수가 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던 예수님의 열심을 닮았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불쌍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쏟으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심에 감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전도의 결실을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전도에 대한 열정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나 전도의 결실을 풍성히 거두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2. 빌립은 능력있는 전도자였습니다.

빌립은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전도자였습니다. 빌립이 행하는 표적은 그때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아 온 마술사 시몬의 마술과 같지 않았습니

다. 마술사 시몬은 사람의 눈을 속이고 귀신을 빙자하여 희한한 일을 행하였지만, 빌립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빌립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으며, 또 손을

없이 많은 중풍병자와 신체 불구자가 나왔습니

다. 이로 인해 사마리아 성은 큰 기쁨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이처럼 빌립을 능력있는 전도자로 삼으신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할 때에 주님은 필요한 모든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 16:17,18)고 하셨습니다. 이는 빌립뿐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빌립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료함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있는 전도의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 빌립은 성령께 순종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의 전도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곳이니만큼 빌립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에게 명하기를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길이었습니

다. 따라서 결코 전도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은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서둘러 그리로 갔으며, 거기서 마침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이 내시를 통하여 복음이 에디오피아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나의 생각이나 방법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바울의 뜻과는 전혀 다른 마게도냐로 가도록 계시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비로소 성령의 뜻을 깨닫고 순종한 결과 유럽이 복음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전 2:10下)고 하였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빌립이나 바울이 그러했듯이 성령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빌립과 같은 전도에 유용한 일꾼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비록 복음 전도의 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지만 한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볼 때 맛보는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빌립과 같이 전도에 대한 열정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또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 안양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 수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대리314번길 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 경기도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 과천 :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 시흥 :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032-507-3731~2
- 부곡 : 경기도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 판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02-2632-3731
- 산본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031-906-3731
- 시화 : 경기도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 영통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 구리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 포일 : 경기도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 전원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 평택 :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 안중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 양주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늘길 30 T.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055-312-3731
- 용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충남로41번길 30 T.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 남양 :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